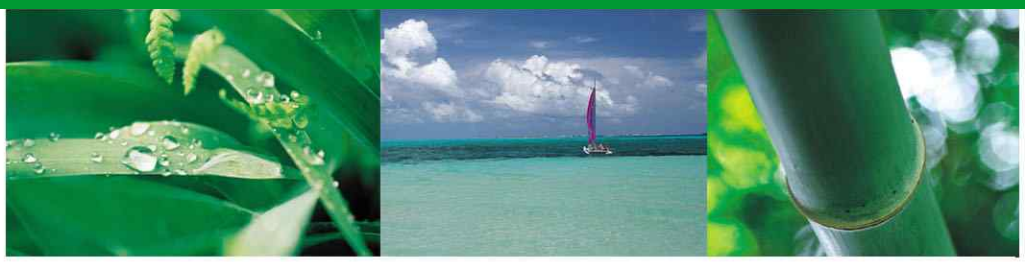
주간건설 Review

728호 2022.7.8.(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호반건설, '데모데이' 통해 스타트업 지원
- 롯데건설, 기술혁신 공모전 시상식
-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최초로 유럽 원전안전 표준 인증 취득
- 한화건설, 건설자재 재활용으로 ESG 경영 실천
- 대우건설,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계룡건설, 친환경 경영 이벤트 큰 호응

▣ 건설경제 일반동향

- 대형건설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동향
- 건설업 상호협력평가 지표 개선 추세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위원회로 이양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고시' 적용기간 재연장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7.2(토)~2022.7.8(금)> | 제728호 2022.7.8(금)

<업계 동향>

◈ 호반건설, '데모데이' 통해 스타트업 지원



'하이 데모데이 2022'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왼쪽부터)

○ 7월7일 호반건설은 플랜에이치벤처스와 함께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하이 데모데이 2022 :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쇼케이스&데모데이'를 개최하였음

○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와 기업인수합병(M&A), 구매,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서는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가 투자 및 육성하는 스타트업 총 6개사(텐일레븐·플럭시티··에이올코리아·라오나크·뷰메진·로위랩코리아)의 핵심 기술과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로드맵 등 발표가 이뤄졌으며, 호반건설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음

○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호반건설은 업계 최초로 액셀러레이터 법인 플랜에이치를 설립하고, 오픈이노베이션팀을 신설해 호반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롯데건설, 기술혁신 공모전 시상식

○ 7월7일 롯데건설은 르엘캐슬 갤러리에서 김금용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 박은병 외주구매본부장을 비롯해 각 기업 수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술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기술 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품질·안전 향상 △원가절감 △DT(디지털전환)·OSC(탈현장 건설방식) 총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9건, DT·OSC 분야 20건 등 총 123건이 접수되었음

○ 실내 주차장에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안내해주는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을 가진 ㈜베스텔라랩이 대상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 우수기술로 선정된 7개 기업에는 대상(2000만원)부터 장려상(300만원)까지 총 9400만원이 지급되며 선정된 우수기업(대상 ~ 동상)엔 정기 평가 가점 부여, 파트너사 등록, 당사 Test-bed(시험 실시) 현장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됨



제2회 롯데건설 기술혁신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베스텔라랩 정상수 대표(첫줄 가운데)와 수상자들

○ 롯데건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우수기업과 동반성장 강화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최초로 유럽 원전안전 표준 인증 취득

○ 7월7일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최초로 유럽의 국제표준 시험인증기관인 'TUV SUD'로부터 원자력 품질관리 표준인 'ISO 19443'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밝혔음



7월6일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ISO 19443 인증서 수여식

○ ISO 19443은 원자력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정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으로, 기존 국제표준과 비교해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 정도와 원전 기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위험성 관리 여부를 더욱 강화해 평가·진단하고 있음

○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원자력 안전 중심 조직 문화 구축', '위·변조 예방 체계 구축', '주요 품목에 대한 위험 분석 및 관리'등 원자력 안전관리 요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받았음

○ 현재 체코,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 국가 원전 운영사들은 원전 주기기 공급의 전제조건으로 ISO 19443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인증서 취득으로 원전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둔 원전사업 품질경영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원전 시장을 확

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화건설, 건설자재 재활용으로 ESG 경영 실천

○ 7월5일 한화건설은 섬유재활용전문업체인 에코프렌즈와 '친환경 건설자재 재활용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친환경 건설자재 재활용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윤용상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왼쪽)과 김영진 에코프렌즈 대표

○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사용 후 폐기하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안전망을 친환경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안전망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건설자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음

○ 기존 PVC 안전망은 사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해 전량 폐기해야 하며,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나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데, 한화건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PVC 안전망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PET 안전망을 쓰고 있으며, 사용 후 안전망은 전량 수거, 세척·가공 과정을 거쳐 칩형태의 콘크리트 섬유보강재로 재활용하고 있음

◈ 대우건설,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7월6일 대우건설은 올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담아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대우건설이 보유한 친환경 기술 리스트

○ 대우건설은 2012년 첫 발간 이후 매년 보고서를 통해 ESG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국제적인 협조 및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별도 콘텐츠를 구성하였음

○ 아울러 ESG 전담팀 신설과 올해 11월로 예정된 전사 ESG 위원회 발족 등 ESG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도 담았음

○ 한편, 대우건설은 모기업 중흥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설립해 온실가스 단기·중기·장기적 감축목표를 수립했으며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식별·평가하고 있음

○ 특히 안전과 관련해 대우건설은 지난해 발표한 안전혁신안을 바탕으로 32개의 혁신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0년 제정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를 갖췄고 최근 임시주총을 통해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음

◈ 계룡건설, 친환경 경영 이벤트 큰 호응

○ 7월5일 계룡건설은 자사의 아파트브랜드 엘리프(ELIF)가 환경보호를 장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음



'엘리프 송촌 더 파크' 계약자 대상 화분증정 이벤트

○ 계룡건설은 지난 4월 일상 속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한 '엘리프와 그린그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텀블러 들고 다니기, 제로웨이스트 등 환경보호 실천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 채널에 게재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음

○ '엘리프와 그린그린 이벤트'에 이어 계룡건설은 최근 '엘리프 송촌 더 파크'의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화분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였음

○ 계룡건설은 화분 증정 이벤트를 통해 계약자들에게 일상 속 자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

◈ 대형건설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동향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맞물면서 올해 상반기 중 대형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 현황

- 올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총액은 2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도 상반기의 9조5천억원과 비교해 111% 급증하였음
- 현대건설이 상반기에만 6조9544억원을 수주해 업계 1위를 차지한 가운데 10대 건설사 중 6개사가 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을 넘어섰음
- 특히 그 동안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SK에코플랜트의 경우에도 올해 리모델링사업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지난해 실적(4363억원)의 2배를 수주

<10대 건설사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현황>

(단위 : 억원)

업체명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증감률(%)
현대건설	1조2,919	6조9,544	438
GS건설	1조890	3조2,107	194
롯데건설	8,985	2조7,406	205
포스코건설	1조2,846	1조5,558	21
대우건설	1조7,476	1조3,222	-24
DL이앤씨	1조7,934	1조2,543	-30
SK에코플랜트	1,223	8,802	620
삼성물산	2,805	8,172	191
HDC현대산업개발	1,004	7,000	597
현대엔지니어링	8,878	6,170	-31
합계	9조4,960	20조524	111

* 자료 : 각 사 7월4일 집계기준, 2022년 상반기 수주액 규모 순위

❒ 시사점

- 상반기 중 대형사들의 정비사업 총수주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원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환경을 두고, 공격적 수주가 향후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과 적극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득이 더 크다고 판단이 양립
- 다만, 최근 수년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택 사업 편중이 심한 상황인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잿값 부담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정비사업에 대한 선별수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대 형성
- 이에따라 향후 건설업과 부동산시장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보수적인 수주 영업전략 필요

◈ 건설업 상호협력평가 지표 개선 추세

○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의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사 간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 지표로 확인됨

○ 코로나 위기와 자재수급 대란 속에서도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과 교육지원, 재무지원 등 꾸준한 상생활동을 이어 온 결과임

<주요내용>

❒ 현황

-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과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을 평가해 점수(등급)를 부여
- 2022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95점 이상' 최우수등급 업체 수가 지난해 7개사에서 13개사로 2배 가까이 증가(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한신공영, DL이앤씨, 금호건설, 에이스건설, 진흥기업, 호반건설, 호반산업, HJ중공업)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비교(대기업)>

(단위 : 업체수)

	2021년	2022년
95점 이상	7	13
90~95점 미만	9	12
80~90점 미만	20	17
70~80점 미만	13	6
60~70점 미만	0	5

- 90~95점 미만의 우수 등급 구간의 건설사들도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지표로 확인됨
- 다만, 전년도에는 없었던 60~70점 미만 건설사들이 5개사가 발생하면서 변별력도 강화되는 추세

❒ 평가

-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하도급대금 현금성지원과 교육 및 재무지원 확대 등 상생 활동이 보편화됐고 관계기관의 점검, 감독 등이 많아지면서 시스템비계 등 안전강화 조치 등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
- 다만, 최근 평가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활용률에 따른 가점 폭이 확대됐고,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감점 폭이 늘어나는 등 안전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되면서 업체간 변별성도 높아지고 있음
- 강화된 기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등급이 하락한 건설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점수, 종합평가 및 종합심사 등 공공공사 입찰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의 범위도 축소되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평가 점수 유지 및 가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 필요

◈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위원회로 이양

○ 7월6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원 민간위원(총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교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도록 함

<주요내용>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 구성 : ❶도시분과 ❷건축분과 ❸주택·토지분과 ❹모빌리티·물류분과 ❺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분과별 7명)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기능 :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
- 절차 :
  - ▶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심의를 진행
  - ▶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회의(실장 참석)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예정
-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특히,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경우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 >

	과제명		과제명
1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교통)	5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도시)
2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물류)	6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 (건축)
3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항공)	7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4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철도)	8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건설)

❐ **향후 계획**

- 2-Track 추진체계(위원회 - 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팀장: 기획조정실장)를 운영하여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
-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하여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
- 원희룡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 밝힘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고시' 적용기간 재연장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각각 내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계약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고, 그 적용기간을 지금까지 연장해 오고 있음

○ 금번 고시로 '한시적 특례 고시'는 올해 말인 2022.12.31.까지 그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그에 따라 가뜩이나 박한 공사비에 자잿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됨

<주요내용>

❐ **수의계약 기준 완화**

-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을 때,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함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에서 7.5%로, 절반 수준 낮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

❒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

- 조달 참여기업에 계약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 기간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종전 5일 이내였던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3일 이내로 단축